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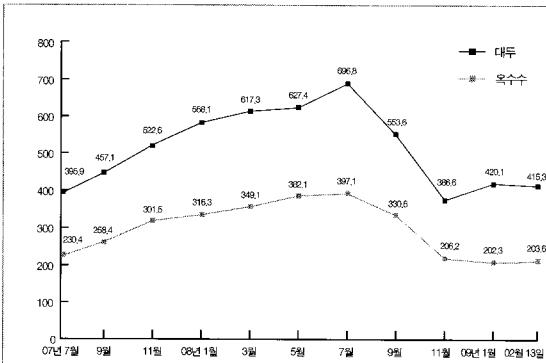
▶ 편집부

2008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와 한미 쇠고기 협상 여파로 축산인들의 앞날이 어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국제 곡물 가격은 천정부지로 상승하였다. 옥수수와 대두 같은 대표적인 사료작물들의 국제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사료 자급률이 30%가 채 되지 않는 국내 축산업계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된 것. 국제곡물 가격동향과 사료가격 동향을 통해 향후 전망 및 국내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처 방안을 알아보자 한다.

## 국제곡물 가격동향과 사료가격동향

2008년 한해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우리나라 경기가 휘청하면서 국내 경기위축과 수출 감소에 따른 원화약세로 10년 전 외환위기 이후 사료회사와 축산농가들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최근 국제곡물가격은 작년 10월 이후 곡물수급의 개선, 달러강세 및 유가하락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하락세를 보여, 올해 초 국내곡물가격은 전년 평균가격에 비해 옥수수 38%, 대두박 13.6%, 소맥 33.8% 하락하였다. (2009년 1월 기준)

- 미산 옥수수의 경우 가뭄으로 생산량이 저조하던 남미 지역에 비가 내려 옥수수 작황 개선 전망으로 2월 13일 C&F 가격이 톤당 203.62달러에 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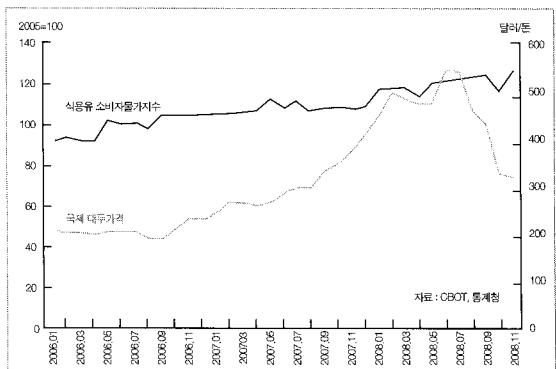
- 대두 가격은 남미 지역 가상 호전에 따른 가뭄 해소 및 중국에서 대두 수입량 감소 또한 가격 하락을 견인하여 2월 13일 기준으로 C&F 가격이 톤당 415.32달러에 형성.

하지만 국제곡물가격의 빠른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수입곡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사료가격은 여전히 상승 추세이거나 소폭 하락하였다. 이런 국제 곡물가격은 환율과 운임 이외에 선물시장 활용비중, 수송시일, 국내 재고 상황 등에 따라 국내 사료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한다. 하지만 사료가격의 하락 시점이나 그 폭에 관하여는 아직 미지수이다. 이것을 피악하기 위하여 사료이외의 곡물가공품의 가격 변동 추이를 바탕으로 사료가격 변화를 예측해야 한다.

국제 밀가격은 2008년 3월 톤 당 403달러까지 상승 후 11월에 톤 당 196달러로 하락하였다. 달러 기준으로는 56.7% 하락하였으나, 원화기준 수입 가격은 동기간 36.6% 하락하여 환율상승이 수입가격 하락을 제한하였다. 밀의 가공품인 밀가루는 2005년 기준 100으로 산출하는 소비자가격지수로 2008년 7월 206.5 까지 상승한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8년 11

월에 169.7호 최고시점대비 17.8%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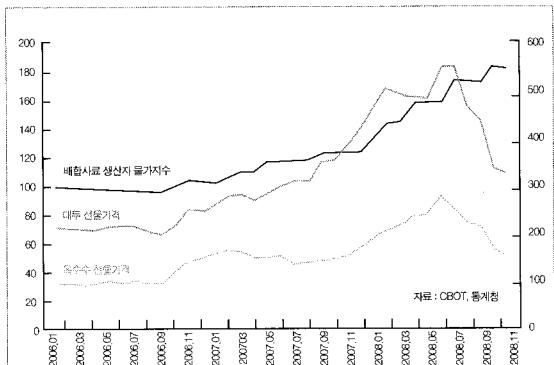
국제 대두가격의 경우 2008년 6월 톤 당 553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점차 하락세를 띠며 2008년 11월 톤 당 329달러로 떨어졌다. 하지만 대두유가 포함된 식용유의 소비자가격지수(2005=100)는 2008년 10월 들어 소폭 하락하였으나 11월에는 129.6으로 상승하였다.



국제 옥수수의 가격은 2008년 6월 최고치인 톤당 276달러를 기록한 후 2008년 11월 톤당 147달러에 거래되었으며, 이는 최고시점 대비 46.7%가 하락한 것이다. 옥수수 수입가격은 2008년 11월 동년 7월 기준으로 19.9% 하락하였으나 원화기준 수입가격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 수입곡물을 원료로 하는 배합사료는 2008년 1월 이후로 빠르게 상승하였다.

**국내 곡물가공품 가격은 국제곡물가격, 환율, 운송비, 유통 단계별 마진에 영향을 받으며, 선물거래와 현물거래 비중 등에 따라 변동된 국제곡물가격이 곡물수입 가격에 반영되는데 시차가 발생한다. 또 각 유통 과정에서 완충작용을 거쳐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국제곡물가격이 곡물 가공품가격에 반영되는 시차를 추정해보니 곡물 가공품 중 밀가루 소비자 가격은 국제 밀 선물가격이 변동한 뒤 5~6개월 후 그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식용유 가격은 국제 대두 가격과 3~4개월의 시차를 두고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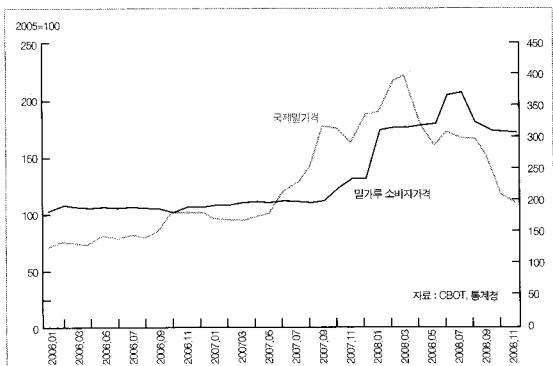


났다. 배합사료는 국제 옥수수 선물가격이 변동한 후 4개월, 국제 대두 가격 변동 후 5~6개월 뒤 가격이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통계적 유의성 기준에 따른 것으로 실제 시장 재고량 등의 변수에 따라 변동가능

이런 계산으로 환율과 국제곡물가격을 2008년 12월 기준으로 사료가격에 대해 산출한 결과 배합사료의 가격은 2008년 7~8월 이후 하락하기 시작한 국제 옥수수 가격과 대두 가격의 영향이 5~6개월 시차를 두고 반영되어 2009년 2월 이후 본격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이런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논문과는 다르게 올해 예상치 못했던 환율 급등 및 경기 침체로 뚜렷한 사료가격 하락은 보이지 않았다. 또 2008년 국제곡물 가격이 높게 생성되었던 시기 국내 많은 사료회사들이 곡물가격이 하락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선 계약을 하여 현재 사료가격을 내리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



[표. 1] 사료원료구매자금 상승분반영 시행기간

기공품	원료곡물	국제가격 → 수입가격	수입가격 → 가공품가격
밀가루	밀	5개월	1개월 이내
식용유	대두	3개월	1개월 이내
배합사료	옥수수 대두박	3개월 5개월	1개월 1개월 이내

로 파악됐다.

2009년도 사료정책에 따르면 2009년 사료원료구매자금 예산에 사료원료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고 상환조건 완화를 통한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도모하여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을 확충하며, 할당·양허 관세 적용을 확대한다고 한다. 이를 통해 사료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사료 협회와 농협이 개별적으로 구매하고 있는 사료원료를 공동구매하도록 하며 참여 업체에 대해서 사료원료구매자금 우대 지원을 하면서 원료 구매 방식을 개선하고, 북미로 편중된 원료 수입국을 동남아와 중국 등으로 확대하여 구매의 안정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부는 이 외에 옥수수 주정박이나 대두피 등 저렴한 대체 원료를 이용하고 국내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를 추진하여 사료 원료 가격 인하에 힘쓰고, 축산 농가에 사료구매자금을 1조원을 추가 지원하여 축산 농가에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환율 하락세과 수입곡물가격의 안정세로 내달 배합사료 가격 5%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2월 사료가격 인하에 뒤 이은 올해 들어 2번째 인하이다. 2009년 한 해는 내수경기 침체도 해소되고, 환율도 계속 안정되어 IMF시절, 사료가 없어 음식물찌꺼기를 대신 급여했던 최악의 상황 없이 사료회사와 축산 농가가 모두 웃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 Duck's topic



화려하게 치장한 오리들이 팩팩거리며 뒤통수를 걷고 있다. 우스꽝스런 오리 패션쇼의 한 장면이다.

## 오리들의 '캣워크'

9일 호주 시드니에서 개막하는 '시드니 로열 이스터 쇼'(Sydney Royal Easter Show)는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축제로, 1820년대 호주의 농경 문화로부터 이어져 오는 호주의 전통 축제이다. 화려한 패션이 펼쳐지는 '피리부는 사나이 오리 쇼'는 축제 하이라이트 중의 하나이다.

▶나비뉴스 [blog.daum.net/blue601](http://blog.daum.net/blue601) | 2009.04.10